논어 16편 계씨 9장 · 원문·풀이

孔子曰：「生而知之者，上也；學而知之者，次也；困而學之，又其次也。困而不學，民斯爲下矣！」

독음 · 공자왈 생이지지자 상야 학이지지자 차야 곤이학지 우기차야 곤이불학 민사위하의

쉬운 풀이(요약) · 태어나면서 아는 것이 으뜸이고 배워서 아는 것이 다음이며, 곤란을 겪고 배우는 것이 그다음이다. 곤란해도 배우지 않는 것이 가장 낮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孔 구멍 공 공 /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生 날 생 생

而 말이을 이 / 知 알 지 / 之 갈 지 / 者 놈 자

上 윗 상 / 也 어조사 야 / 學 배울 학 / 次 버금 차 차

困 괴로울 곤 곤 / 又 또 우 우 / 其 그 기 / 不 아닐 불

民 백성 민 민 / 斯 이 사 사 / 爲 할 위 / 下 아래 하 하

矣 어조사 의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